



중소형 항공기 제작의 선도기업, 봄바디어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5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터보프롭 항공기가 앞다투어 신문지상에 올랐다. 바로 Q400. 제주지역항공사인 제주에어가 내년부터 제주노선에 본격 투입할 항공기로 Q400을 최종 선정할 것이다. 이 Q400 기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있다면 봄바디어 에어로스페이스사(Bombardier Aerospace, 이하 봄바디어사), 캐나다에 본사를 둔 Q400 제작사이다.

사실 봄바디어사는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굴지의 항공기 제작업체이지만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라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봄바디어사가 생산하는 주력 항공기들의 수요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 실제로 봄바디어사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리어제트·챌린저·글로벌 시리즈는 비즈니스기(business jet)이고, CRJ 및 Q 시리즈는 지역항공기(regional aircraft)여서 최근까지도 이들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상 초계용 항공기로 챌린저 604 항공기를 도입했고, 이어 제주에어가 향후 제주노선에 운용할 항공기로 Q400을 선정함으로써 봄바디어사는 한국의 항공시장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대표적 항공기인 리어제트(Learjet), 챌린저(Challenger), CRJ

시리즈 등 다양한 비즈제트기와 리저널기를 선보여 오늘날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로 발돋움한 봄바디어사는 처음부터 항공 분야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봄바디어사의 첫 출발지는 수송용 철도차량. 1942년 J. 아르망 봄바디어(J.Armand Bombardier)가 철도차량을 전문으로 하는 라오토-네지 봄바디어 리미테(L'Auto-Neige Bombardier Limitee)라는 회사를 캐나다 퀘벡(Quebec)에 설립한 것이 현재의 봄바디어 에어로스페이스(Bombardier Aerospace),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Bombardier Transportation), 봄바디어 캐피탈(Bombardier Capital)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된 봄바디어사의 모태가 됐다.

이처럼 철도차량 및 설상차(snowmobile) 제작을 전문으로 하던 봄바디어사가 본격적인 항공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86년 당시 캐나다 내 항공기 제작 부분의 선두업체였던 캐나다어(Canadair)를 인수하면서부터였다. 이어 1990년에는 '리어제트(Learjet)'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제트기 생산업체였던 미국의 리어제트사(Learjet Company)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중소형 항공기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봄바디어사의 항공기 시장 진출과 동시에 비즈제트 및 지역항공 시장의 세계적인 호황에 힘입어 전체 봄바디어사가 벌

어들이는 소득의 반 이상이 항공 분야에서 나올 정도로 봄바디어사는 항공 사업에서 소위 '쏟아진 재미'를 봤으며, 일약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제3대 항공기 제작사로까지 발돋움하게 됐다.

이처럼 봄바디어사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로서 발돋움한 데에는 무엇보다 적시적소의 기업 합병전략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항공 시장에 맞춰 시장이 요구하는 요소들을 정확히 읽어낸 데 있다. 예컨대 봄바디어사는 1986년 캐나다에 이어 1989년에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민간/군사용 항공기 제작업체이자 라이트 형제와도 첫 항공기 제작을 계약한 바 있는 오랜 전통의 쇼트 브라더스사(Short Brothers plc)사를 인수했으며, 1990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즈제트기 제작업체인 리어제트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1992년 12월에는 전세계 유수의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에게 우수

Aviation Services)를 미국 L-3 커뮤니케이션스(L-3 Communications Corporation)의 소속사인 스파 에어로스페이스(Spar Aerospace)에게 8천7백40만달러에 매각하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기업 합병과 매각을 통한 유동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봄바디어사는 이러한 능수능란한 기업 합병 및 매각과 아울러 항공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997년 봄바디어사는 자사가 생산한 항공기를 위해 유럽에서 유일한 네트워킹 서비스 센터인 루프트한자 봄바디어 에비에이션 서비스(Lufthansa Bombardier Aviation Services)를 개통한 데 이어 1995년 3월에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인 비즈니스 제트솔루션스(Business JetSolutions)를 미국의 AMR 콤스사와 공동으로 설립해 비즈제트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감찰청이 운용중인 챌린저 604



리어제트 45 객실

한 엔진나셀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의 유르-두브와사(Hurel-Dubois)와 소속사인 쇼트 브라더스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인터내셔널 나셀 시스템스 EEIG(International Nacelles Systems EEIG)라는 공동회사를 설립했으며, 1993년 3월에는 역시 쇼트 브라더스사와 단거리 함대공 방어시스템 분야 업체인 프랑스의 톰슨-CSF(Thompson-CSF)사와 50%를 각각 출자하여 쇼츠 미사일 시스템스(Shorts Missile Systems Limited)를 설립한 후 2000년 1월, 보유하던 50%의 지분을 톰슨-CSF사에게 매각했다.

이어 1993년 11월, 봄바디어사는 소속사인 쇼트사를 통해 영국의 국제적인 항공지원시설 생산업체인 에어워크사(Airwork Limited)를 인수했으며, 1995년에는 소속사인 리어제트사가 미국의 AMR 콤스사로부터 4개의 항공기 정비센터를 인수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자사의 자본재구성을 위해 밀리터리 에비에이션 서비스(Military

'플렉스제트(Flexje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전세기 개념으로 비즈제트기 이용 시간이 한 해에 5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고객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일단 고객이 한 해에 비행할 일정과 구간, 그리고 리어제트 40/45XR/60, 그리고 챌린저 300/604 기종 중 자신에게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시간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집과 공항, 그리고 도착 후 공항과 최종 목적지를 잇는 교통수단까지,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95년부터는 CAE 일렉트로닉스(CAE Electronics)사와 항공우주 훈련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2월에는 당시 성장세에 있던 지원·정비·훈련 서비스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봄바디어 서비스(Bombardier Services)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코퍼레이트 서플 솔루션, 개인 비즈제트기 임대

를 위한 스카이제트 프로그램 등도 잇따라 선보였다. 이처럼 봄바디어사는 혁신적인 기업합병과 비즈제트기·리저널기·수륙양용 항공기 설계 및 제작,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게 됐다.

봄바디어사는 앞서 언급한 민간용 항공기 개발 외에 최근까지 군용 부분에서도 캐나다 국방부의 주요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기업 구조혁신 등을 통해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 등 기타 여러 나라에 걸쳐 군용 부문에 참여했다. 특히 영국 공군이 전장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E-8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프로그램에 봄바디어사는 챌린저 글로벌 익스프레스(Challenger Global Express) 초장거리 비즈제트기에 적용된 공중 스탠드오프 레이더(ASTOR: Airborne Stand-Off Radar)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봄바디어사는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에 가까운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 특히 봄바디어사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 경쟁사인 브라질의 엠브레어사로부터 자유무역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줄곧 비난받아 왔으며,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세금이 이 튼실한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봄바디어사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반론할 정도로 봄바디어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실제로 봄바디어사는 캐나다 정부를 비롯해 자사 시설이 있는 여러 국가로부터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여러 형태의 직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89년 봄바디어사가 북아일랜드에 소개한 민간 및 군용항공기 제작업체인 쇼트 브라더스사(Short Brothers)를 인수했을 당시 영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으며, 미국 버몬트주에 조립공장을 설립



했을 때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고객 입맛에 맞춘 항공기 개발에 주력해온 봄바디어사는 최근 근황으로 지난 파리 에어쇼에서 최신형 CRJ705 제트여객기를 선보였다. 75석 규모의 CRJ705는 현재 총 15대를 주문받은 상태로 지난 6월 1일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재즈(Air Canada Jazz)에 첫 인도됐다. 이 CRJ705는 저렴한 운용비와 우수한 성능이 큰 특징으로 속도는 시속 880킬로(마하 0.83), 항속거리는 3,773킬로, 최대운용고도가 12,497미터이다.

또하나 봄바디어사는 기존에 생산했던 항공기에 비해 새로운 기술과 소재, 그리고 뛰어난 경제성을 가진 보다 더 큰 규모의 'C 시리즈' 항공기를 개발키로 발표했다. 핵심적인 개발 개념은 승객의 편의가 강조되고 유동적인 운용성을 갖추는 등 미래 환경에 부합되는 항공기 개발로 이 개발 프로그램에 영국 정부도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봄바디어사와 영국은 이 새로운 C 시리즈 항공기 개발에 관한 동의서(LOI)에 서명을 했으며, 1억 8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물론 이 금액은 C 시리즈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수도에 위치한 봄바디어 벨파스트(Belfast) 공장에도 투자될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C 시리즈 항공기의 주날개 및 복합소재의 꼬리날개 구조, 그리고 엔진 나셀 등이 개발되며, 최종조립은 캐나다 퀘벡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㉞

